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서양음악사 서술 방식 및 내용 구성 고찰

임새롬*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의 서양음악사를 중심으로 서술 방식 및 내용 구성의 고찰을 통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 텍스트에 수록된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간의 서술 방식, 시대 구분 및 연도, 시대별 분량을 비교·분석하고 내용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설명식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시대를 연결하지 못하는 미쌍 링크가 발견되었다. 또한, 연대표의 부재, 연도의 표기, 진술된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음악사 교육을 위해 내러티브식 텍스트 서술과 삽화의 효율적인 활용, 최근 경향을 반영한 교과서 가창영역과 같이 음악사 서술도 동시대 음악을 포함하여 다원적인 관점을 수용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한다.

※ 주제어: 교과서, 음악사, 서술, 내러티브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음악 교과서의 음악사 서술 방식 및 내용 구성 고찰

1. 내러티브(narrative)와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러티브식 서술의 근거
2.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사 서술 및 내용 구성 고찰

III. 음악사 서술 및 내용 구성의 방향 제안

1. 내러티브식 텍스트 서술과 미쌍 링크(missing link)의 보완
2. 삽화의 교육적 의미 및 활용
3. 젊어진 가창영역과 젊어진 음악사
4. 독일 중심주의 관점을 탈피한 다원적 서술
5. 그 외 발전적 음악 교과서를 위한 제안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박사과정, 대구 강북중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고전이자 가장 유명한 입문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E. H. Carr(1961)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 즉 상호작용의 의미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사라 일컫는 음악의 역사는 무엇인가. 현재의 음악과 과거의 음악, 현재의 음악을 즐기는 나와 과거의 음악을 즐긴 이들과의 대화가 아닐까. 음악으로 상호작용하는 음악사 수업과 교과서의 서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김한중(2016, 2006)에 따르면 지나간 사실과 현실, 그리고 이를 보는 눈은 역사와 교육이 만나는 접점이며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나간 사실들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다. 또한 자료를 읽거나 보면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사고 행위는 맥락적 이해로 이를 위해 역사적 사실은 흔히 주어진 상황과 일어난 일 사이의 인과관계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사에 관해 여러 정의가 있겠으나 음악사의 정의와 교육적 가치, 교육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 판단되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사’ 과목의 ‘목표’를 살펴본다.

‘음악사’는 음악의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음악 문화나 작품, 작곡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음악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음악이 한 시대의 미의식이나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다른 시대 또는 다른 지역의 음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작품 및 연주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비평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음악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음악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성과 다양한 미적 가치를 이해한다.

가. 시대별로 우리나라, 동양, 서양 음악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한다.

나.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다. 음악사적 배경과 악곡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음악 문화를 바라보는 비평적 안목을 기른다.

라. 음악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배양한다.

또한 위 교육과정의 ‘3. 교수·학습방법’에서 ‘다. 학습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보다는 주요 경향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관련지어 지도한다.’, ‘라. 시대적 특징과 더불어 개념이나 양식의 통사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명시하여 음악사 교육이 각각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을 관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음악교육제도 음악사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제언을 하였는데 그 핵심은 음악사 교육이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맥락(context)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을 감상할 때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화적·예술적인 배경의 이해는 필수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자료이자 수업상황의 핵심이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있어 중심이 되는 교육매체인 음악 교과서는 음악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분석 결과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사 서술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상의 결과, 즉 각 시대별 사조나 특징, 작품과 대표 작곡가를 비교적 단순히 제시하고 있었다. 각 음악 사조에 담긴 철학과 정신, 시대와의 개연성 없이 탈맥락화한 상태에서 작곡가가 누구이고 작품이 어떤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최윤경(2008) 또한 악곡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고려되지 않고 기능 위주의 음악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내러티브(narrative)가 실종되고 학생과 음악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서술 없이 학생들이 외워야 할 음악 용어나 개념을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철기(2011)는 교과서의 역사 서술이 ‘목소리(voice)’도 ‘관점(view)’도 들어있지 않으며 어떠한 인격적 특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학습과정이나 지식의 탐구과정은 배제된 채 결과적 측면에서의 완결형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브루너(Bruner, 1996)에 의하면 학습은 내러티브(narrative) 과정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일정한 과정이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지식의 의미 구성에 있어서 맥락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인 학습경험의 획득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제들을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새롭고 유의미한 형태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이윤호, 강현석, 2013, p. 89).

사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곡이 어느 시대에 속하든 비슷한 곡으로 들리기 마련이다. 음악사와 일반적인 인류 문명사 사이의 빈틈

과 앞 시대와 다음 시대 사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즉 ‘미씽 링크(missing link)’를 찾아 서술하여 시간적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준다면 학습자로서도 시간적 흐름에 입각하여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역사상 요즘처럼 음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때는 없었으며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지금도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음악교육의 지향점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발전했는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고 전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감각을 가지게 하는 일일 것이다. 여러 논문들이 음악 교과서 텍스트의 잘못된 연도 표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수록했다는 오류를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쏟아지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에 대해 ‘어려울 뿐 아니라 나와 무관한 일부 계층의 음악’이라 인식하고 있다. 작곡가와 작품을 알게 하거나 시대의 특징을 ‘공부해야만 할 것 같은’ 교과서의 서술은 지난 10년 간 교육과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 그 역사 속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활동을 펼쳤기에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왜 그러한 음악이 사랑받았으며 왜 그 당시에 그러한 음악이 발달하였는지에 대한 맥락적인 서술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역적 제시 방식인 설명식 텍스트는 요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방대한 정보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거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론 혹은 운명론과 같이 나열된 ‘예전에 어떤 음악이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서술 방식은 시험 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서양음악사 텍스트를 중심으로 음악 교과서 서술 방식과 내용 구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고찰한 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의 서술방식에서 탈피하여 음악의 뿌리부터 지금까지, 클래식이 요즘 유행하는 음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가까운 것임을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된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나 이미 지난 몇 년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사와 관련된 중학교 음악 17종 교과서의 분석은 많이 나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에 새로 출판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표 1>)을 대상으로 한다.

각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사 영역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주안점을 두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간의 서술 방식, 각 시대 구분 명칭 및 연도 구분, 시대별 분량,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음악사 내용 구성 또한 고찰하였다.

현 교과서의 ‘음악사’는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가 거의 5:5의 대등한 분량으로 수록된 상태로 한국음악사는 악곡 자체가 이미 역사로써 서술되어 있고 서양음악사와는 양상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양음악사만을 다루며 앞으로 언급되는 ‘음악사’는 서양음악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될 시대명이나 각 악곡명은 수정 없이 각 교과서에 기술된 그대로 실었음을 밝힌다.

<표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2018 출판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 중학교 음악 교과서 | | |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 | |
|--------------------|---------|----------|---------------------|----------|----------|
| 도서명 | 출판사 | 저자 | 도서명 | 출판사 | 저자 |
| 중학교 음악 (14종) | 교학사 | 고영신 외 7인 | 고등학교 음악 (10종) | (주)금성출판사 | 김용희 외 4인 |
| | 금성출판사 | 현경실 외 4인 | | 다락원 | 조대현 외 6인 |
| | 다락원 | 조대현 외 6인 | | 미래엔 | 장기범 외 8인 |
| | 동아출판 | 민경훈 외 8인 | | (주)박영사 | 주광식 외 3인 |
| | 미래엔 | 장기범 외 6인 | | 비상교육 | 주대창 외 3인 |
| | 박영사 | 주광식 외 2인 | | (주)아침나라 | 김광옥 외 5인 |
| | 비상교육 | 주대창 외 3인 | | 와이비엠 | 강민선 외 8명 |
| | 성안당 | 정옥희 외 4인 | | 음악과 생활 | 양종모 외 8인 |
| | 세광음악출판사 | 허화병 외 3인 | | 지학사 | 황병숙 외 6인 |
| | 아침나라 | 김광옥 외 5인 | | 천재교과서 | 최은식 외 7인 |
| | 와이비엠 | 박준영 외 6인 | | | |
| | 음악과 생활 | 양종모 외 7인 | | | |
| | 지학사 | 정길선 외 5인 | | | |
| | 천재교과서 | 최은식 외 6인 | | | |

Ⅱ. 음악 교과서의 음악사 서술 방식 및 내용 구성 고찰

1. 내러티브(narrative)와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러티브식 서술의 근거

국내에서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고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데 교육 심리학자인 브루너(1996)가 그의 저서에서 내러티브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 교육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반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윤경, 2008, p. 17).

내러티브(narrative)의 정의에 관해 브루너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거나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손쉬우며 강력한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강현석, 2007, p. 190, 재인용). 최윤경(2008)은 인간의 삶의 경험을 인과 관계, 시간적 계열을 고려하여 유의미하게 구성한 이야기이자 이러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며, 인간의 경험을 맥락 속에 위치시켜 주는 인식의 틀, 즉 사고방식이라고 하였다. 양호환(1998)은 좁은 의미에서의 내러티브는 연대기적 계열 순서를 조직하고 내용을 단일하고 조리 있는 이야기로 집중시키는 역사서술의 형태로 내러티브의 시간상 전후관계를 통해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해온 역사의 서술은 보통 설명식으로 나열하는 정도였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과 같이 일어난 사건이 양상의 변화를 명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관계 짓는 다양한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내적 관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나타내는 것이 곧 내러티브이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역사인식의 기본적 성격이다(김한중, 1999b, p. 95).

음악에서도 내러티브가 있다. 음악은 작곡가들의 창조 정신에서 비롯된 산물로써 그 속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 과정이 담겨 있으며 위대한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삶과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음악은 작곡가의 내러티브 사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 즉,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최윤경, 2008, pp. 4-5).

우리는 이러한 음악의 내러티브를 역사적 내러티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과정(2009·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활동

의 중요한 축인 음악 감상에 있어 역사·문화적 배경 이해에 관해 <표 2>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내러티브에 기반한 음악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2009·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중·고등학교) 중 음악사 관련 내용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 | |
|---|--------------------|---|
| 중학교 '음악' (중학교 1~3학년) 중 감상 영역 | 내용 영역별 지도 | (가)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의 요소와 음악의 종류 및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인물·사회 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1~3학년) | 영역별 내용 | (2)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가) 음악을 사회 현상으로 이해한다. ① 음악과 관련된 가치 판단이 사회·경제·정치·환경·종교적 경험과 맺는 상호연관성에 대해 토론한다. |
|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 | | |
| 음악과 목표 | | 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
| 중학교 '음악' (중학교 1~3학년) 중 감상 영역 | 성취기준 중 감상 영역 |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그 음악이 속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
| 고등학교 '음악' (고등학교 1~3학년) | 성취기준 중 감상 영역 |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듣고 음악이 형성된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그 음악이 속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






위의 표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뿐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목표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음악’,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에도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고 설명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음악사가 맥락적인 서술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2.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사 서술 및 내용 구성 고찰

앞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에서 음악을 ‘사회 현상에 기반한 역사적 산물’로 서술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에 새로 출판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에 소개할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우선 서술 방식의 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 교과서의 음악사에 나타난 서술 방식을 내용면과 유형면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의 음악사 텍스트 서술 방식 구분

| | 내용 | 내러티브식 텍스트 |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의 관계가 맥락적인 서술 |
|----------------|----|---|--|
| | | 설명식 텍스트 |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의 관계가 비맥락적인 서술 |
| 교과서의 음악사 서술 방식 | 유형 |  | 줄글식 |
| | |  | 개조식 |
| | |  | 개조식+삽화식(개별) |
| | |  | 개조식+삽화식(복수) |
| | |  | 만화식 |

1) 설명식 텍스트 vs. 내러티브식 텍스트



음악사의 서술 내용은 크게 설명식 텍스트와 내러티브식 텍스트로 구분되는데, 연역적 제시 방식인 설명식 텍스트는 다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음악적

특징만을 비맥락적으로 서술한 것(방식A)과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함께 서술하였으나 단순히 나열함으로써 비맥락적으로 서술한 것(방식B)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식 텍스트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요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거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내러티브(narrative)는 스토리(story)와 유사하게 여러 사건을 플롯 방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맥락(context)이 발생한다. 이주섭(2001)에 의하면 맥락(context)은 그 자체의 특징적이거나 구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어와 언어가 맺고 있는 관계이자 언어와 상황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맥락은 유의미 학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음악적 내용의 변화와 발전을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서술한 것(방식C)으로 나타난다.

교과서 텍스트에서 나타난 위 3가지 방식의 서술 중 먼저 첫 번째 분류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음악적 특징만을 비맥락적으로 서술한 방식A의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음악사 텍스트를 방식A로 서술한 사례

| | |
|--|---|
| 줄글식  | 단성 음악 위주였던 중세와 달리 이 시기에는 모방 대위법에 따른, 미사나 모테트와 같은 다성 음악이 발달하였다. 교회 음악은 악기 반주가 없는 합창 음악인 ‘아카펠라’로 구성되었다. 교회 밖에서는 세속 음악도 꾸준히 발전했는데, 이탈리아의 마드리갈과 프랑스의 샹송이 그 예이다. 또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보급되어 악기 연주나 음악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
| 개조식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1 시대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크 시대는 일반적으로 1600년경부터 바흐가 죽은 1750년경까지를 일컫는다. 미술, 건축, 음악에서 장식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함과 웅장함의 특징이 있다. 바로크 시대는 왕권이 강화된 절대 왕권의 시대로 대부분 궁정이나 교회의 후원을 받아 작곡가들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p>2 음악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확립되었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의 극음악이 탄생하였다. 활기차고 선 굵은 멜로디를 기반으로 많은 장식음을 사용하였다. 두 개 이상의 성부로 이루어진 다성 음악이 발달하였다. 협주곡의 음악 형식과 기악곡이 발달하였다. </div> |

개조식
+
삽화식
(개별)












개조식
+
삽화식
(복수)



- 1 장조와 단조 조성 확립
- 2 다성 음악의 절정
- 3 오페라의 탄생 및 발전
- 4 합주 협주곡 유행





만화식



피아노가 독주 악기로써 크게 유행했고,

독주 악기에 건반 악기로 반주하는 소나타도 자주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별부가 있는 관악기가 등장했고, 팀파니가 오케스트라 악기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로 구성된 현악 4중주는 실내악의 대표적인 장르였어요.

또한, 교향곡은 고전주의 시대에 형식의 기틀이 완성되고 중요한 장르로 여겨졌어요.



하이든
(1732~1809)



모차르트
(1756~1791)












베多芬
(1770~1827)

- 162 -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을 함께 기술하였으나 단순히 나열함으로써 비맥락적으로 서술한 방식B의 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5> 음악사 텍스트를 방식B로 서술한 사례

| | |
|---|--|
| <p>줄글식</p>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small;">▲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이탈리아 피렌체의 모습</p> </div> <div style="width: 50%;"> <p>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운동을 말한다. 신 중심이었던 중세 시대의 기독교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으로 돌아가자는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하여 여러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다.</p> </div> </div> <p>◆ 음악적 특징</p> <p>인쇄술의 발명으로 악보의 대량 보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음악의 생산과 소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종교 음악과 세속 음악이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였다. 네덜란드 악파에 의해 다성 음악이 성행하였으며, 바이올린 등의 다양한 악기가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다. 두 개 이상의 성부가 같은 선율을 모방하는 모방 대위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무반주 합창 음악인 '아 카펠라'가 번성하였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던스타블, 조스캥, 뒤파이, 오케헌, 팔레스트리나 등이 있다.</p>  |
| <p>개조식</p>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 음악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위법과 모방 기법 발달 • 장조와 단조의 확립 • 푸가, 합주 협주곡, 모음곡 등의 기악곡 발달 •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탄생 </div> <div style="width: 45%;"> <p>◆ 역사·문화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전쟁(1618), 베스트팔렌 조약(1648) • 절대 왕정의 시대 • 자동설(갈릴레이, 1632), 만유인력(뉴턴, 1665) • 식민지 개척 시대 </div> </div> |
| <p>개조식 + 삽화식 (개별)</p>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div style="width: 22%;">  <p>인본주의의 부활</p> </div> <div style="width: 22%;">  <p>탐험과 발견의 시대</p> </div> <div style="width: 22%;">  <p>다성 음악의 발전</p> </div> <div style="width: 22%;">  <p>세속 음악의 성장</p> </div> </div> |

세 번째,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음악적 내용의 변화와 발전을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서술한 방식C의 사례는 <표 6>과 같다.

<표 6> 음악사 텍스트를 방식C로 서술한 사례

만화식



<르네상스>

교회가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면서 교회 권력이 무너졌고, 흑사병(페스트)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1/3이 사망하게 되었어.



이로 인해 기존 세력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 중심 사상을 회복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지.



<고전주의>

자연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



이 무렵 이탈리아 오페라는 번잡한 무대와 카스트라토가 돋보이도록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음 위주의 기교적인 선율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어.

연습도 안 해보고 볼거리를 다 망치면 어떡해요!



이에 글록은 선율의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가사 표현에 중점을 둔 오페라 개혁을 하였고, 그 풍위를 회복시켰지.

간결하면서도 동일된 아름다움이란!



이처럼 고전 음악은 바로크 시대의 과도한 표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절제와 균형을 표현하려 했어.

형식 논리 조화
균형 질서
초고의 아름다움!



가사 없이 악기 소리만으로 감정,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서 기악 음악을 많이 작곡했는데 이를 절대음악이라고 해.

가사 등 음악 이외의 요소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고

발전부
대비부
결정부
무가사 정화하곤!



<르네상스와 현재의 연결>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성경을 인쇄했고, 1501년 이탈리아의 페트루치가 최초의 악보 인쇄소를 열게 되면서

페트루치의 인쇄소



손으로 그리던 악보를 대량으로 출판하게 되었어. 그 후로 음악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때부터 악보가 많이 남게 되었거든!



연구 대상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24종의 분석 결과 90% 이상의 교과서에서 설명식 텍스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들에 비해

- 164 -

삽화와 만화의 빈도가 높아지긴 하였으나 그림을 활용해서도 설명식 서술에 의존이 강한 것이다. 방식A, B와 같이 교과서 텍스트에서 역사적 배경 언급이 없이 혹은 언급하였으나 비맥락적인 나열에 그친 서술이 현재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 도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의 사고가 명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 없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음에도 역사의 방향성과 에너지가 누락된 채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이 평범한 일상에서 인간의 표현 욕구와 감정 혹은 필요가 만나 만들어지는 예술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은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한 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한 번도 소멸된 적 없이 우리의 현재에 살아 있다. 200여 년 전에 작곡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연주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음악을, 특히 클래식을 과거의 유물처럼 서술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사실성을 담아내거나 역사적 합리성을 생성해 내지 못함에 따라 학교 음악은 학습자에게 단지 문자로만 남는 음악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는, 교과서에서 나열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이 내용 그대로 담긴 악곡은 몇 곡을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아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감상능력 대신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그칠 수 있다. 시대감이 없는 음악 지식으로 하나의 소품을 알고 감상하는 데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은 시대적·사회적·문화적인 맥락과 작곡가의 의도가 포함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정규화된 분석이 들어맞는 곡은 많지 않다. 이는 결국 음악사 수업이 이론으로 그치고 실제 악곡을 들을 때는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는, 맥락 없이 특징만을 요약하여 생소한 음악 용어로 설명한 것을 접한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미씽 링크(missing link)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사교육에 있어 지양해야 할 부분인 점이다. 한 시대에 등장했던 음악의 내용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소멸되거나 이전의 음악 내용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출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정한 음악 내용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해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변모된 ‘오래된 음악’은 그런 이유에서 ‘현대의 음악’과 공통된 DNA를 가진다. 그러나 맥락(context)을 느낄 수 없는 서술은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만을 남긴다.

태초에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성악부터 발달하였으며 교회에서는 특히 음악이 발달했는지, 어떻게 장·단조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왜 악보가 15세기 이후 특히 많이 남았으며 화성 음악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 왜 다성 음

악에서 화성 음악으로 흐름이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왜 자신의 감정을 음악에 담기 시작했으며 왜 20세기 전후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어둡고 불안정한 느낌의 음악이 많이 만들어진 건지, 뮤지컬이나 록(Rock)이나 영화음악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기에 지금도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없는 비맥락적인 서술은 음악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꾸준히 발전해 온 학문이 아닌 현실과 먼 옛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마치 암기해야 하는 내용으로만 보이게 한다.

2) 미씽 링크(missing link)의 발생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 정의하는 ‘미씽 링크(missing link)’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미씽 링크(missing link)

1. 빠진 고리(전체를 이해하거나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같은 것)
2. the missing link 미싱 링크, 멸실환(진화 과정에서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화석은 발견되지 않은 동물)

보통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종과 종 사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빠진 고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우리 음악 역사의 논리적 서술에서도 2가지 유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2018년에 새로 출판된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관한 <표 7>과 <표 8>을 살펴보자.

<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시대 구분 및 연도, 분량 비교

| 출판사 | 연대표 쪽수 | 시대 구분 및 분량 | | | | | | | 비고 | |
|-----------|-----------|------------|-------------|-----------------|------------------|------------------|------------------|------------|-------------------------------------|--|
| | | 시대명 | 고대·중세 | 르네상스 | 바로크 | 고전 | 낭만 | 근·현대 | | |
| 교학사 | 4 | 연도 | (~1450) | (1450 ~1600) | (1600 ~1750) | (1750 ~1820) | (1820 ~1900) | (1900~) | 본문에는 연도 언급 없이 연대표에 만 제시 | |
| | | 수량(권) | ① | | | | ② | | | |
| | | 분량(p) | 0 | 0 | 0 | 0 | 0 | 0 | | |
| | | 분량(%) | . | . | . | . | . | . | | |
| 금성 출판사 | 0 | 시대명 | 고대·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20세기 음악 | |
| | | 연도 | ~1450 | 1450 ~1600 | 16C 말 ~18C 중엽 | 18C 중엽 ~19C 초 | 18C 말 ~20C 중엽 | 19C 말 | 19C 말~ | |
| | | 수량(권) | ② | | | | | | | |
| | | 분량(p)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 | | 분량(%) | 14.3 | 14.3 | 14.3 | 14.3 | 14.3 | 14.3 | 14.3 | |

| 출판사 연대표 쪽수 | | 시대 구분 및 분량 | | | | | | | | 비고 |
|-------------|-------|--------------------|---------------|----------------|----------------|-----------------------------|-----------------|----------------|------------------------|--------------------------|
| 다락원 2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연도 | 기원전 ~5세기 | 5세기 ~15세기 중반 | 15세기 중반 ~17세기 | 17세기 ~18세기 중반 |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 19세기 | 19세기 후반 | 19세기 후반 ~현재 | |
| | 수록 권 | ① | | | | | | | | |
| | 분량(p) | 1 | | | 1/3 | 1/3 | 1/3 | 1/3 | 1/3 | |
| | 분량(%) | 37.5 | | | 12.5 | 12.5 | 12.5 | 12.5 | 12.5 | |
| 동아 출판 2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 연도 | (B.C. 3500 ~ 350년) | (350년 ~1450년) | (1450년 ~1600년) | (1600년 ~1750년) | (1750년 ~1820년) | (1820년 ~1910년) | (1910년 ~) | 본문에는 연도 언급 없이 연대표에만 제시 | |
| | 수록 권 | ② | | | | | | | | |
| | 분량(p)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분량(%) | . | . | . | . | . | . | . | . | |
| 미래엔 2 | 시대명 | | | | 바로크시대 음악 | 고전시대 음악 | 낭만시대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인상주의와 20세기 음악 | |
| | 연도 | | | | 1600 ~1750년 | 1750 ~1820년 | 1820 ~1900년 | 19세기 후반 | 1900~현재 | |
| | 수록 권 | ② | | | | | | | | |
| | 분량(p) | | | | 1/2 | 1/3 | 1/2 | 1/2 | 1/3 | |
| | 분량(%) | | | | 23.1 | 15.4 | 23.1 | 23.1 | 15.4 | |
| 박영사 2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시대 | 바로크 음악 | 고전 음악 | 낭만 주의 | 민족 주의 | 후기 낭만주의 | |
| | 연도 | (B.C. ~15C) | (15~16C) | (17C~18C) | (18C~19C) | (19C~20C) | (20C) | (20C) | 본문에는 연도 언급 없이 연대표에만 제시 | |
| | 수록 권 | ① | | | ② | | | | | |
| | 분량(p) | 1/2 | 1/4 | 1/2 | 1/4 | 1/2 | 1/3 | 0 | | |
| | 분량(%) | 21.4 | 10.7 | 21.4 | 10.7 | 21.4 | 14.3 | 0 | | |
| 비상 교육 0 | 시대명 | | | 르네상스 | 바로크 | 고전주의 | 낭만주의 | 근대 음악 | 현대 음악 | |
| | 연도 | | | 15세기 ~16세기 | 17세기 ~18세기 중반 | 18세기 중반 ~19세기 초 | 19세기 전반 | 20세기 초 | 20세기 초 ~현재 | |
| | 수록 권 | ① | | | | | | | | |
| | 분량(p) | | | 1/2 | 1 | 1 | 1 | 1/2 | 1/2 | |
| | 분량(%) | | | 11.1 | 22.2 | 22.2 | 22.2 | 11.1 | 11.1 | |
| 성안당 2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 음악 | 낭만 음악 | 근대 음악 | 현대 음악 | |
| | 연도 | ~5세기 이전 | 5세기 ~14세기 | 15세기 ~16세기 | 17세기 ~18세기 중 | 18세기 중 ~19세기 초 | 19세기 초 ~20세기 말 | 20세기 초 ~20세기 중 | 20세기 중~ | |
| | 수록 권 | ① | | | ② | | | | | |
| | 분량(p) | 1 | 1 | 1 | 1 | 1 | 2 | 1 | 1 | |
| | 분량(%) | 11.1 | 11.1 | 11.1 | 11.1 | 11.1 | 22.2 | 11.1 | 11.1 | |
| 세광 음악 출판사 1 | 시대명 | | | | 바로크 | 고전파 음악 | 낭만파 음악 | 국민악파 음악 | 20세기 음악 | |
| | 연도 | | | | 1600 ~1750 | 18세기 중엽 ~19세기 초 (1750~1820) | 18세기 중엽 ~20세기 초 | 19세기 말 | (20세기)~현재 | 고전파 음악의 연도가 본문과 연대표에서 다름 |
| | 수록 권 | (연대표만 고대·중세 언급) | | | ① | | ② | | | |
| | 분량(p) | | | | 0 | 0 | 0 | 0 | 0 | |
| | 분량(%) | | | | . | . | . | . | . | |
| 아침 나라 2 | 시대명 | | | | 바로크 음악 | 고전파 음악 | 낭만파 음악 | 국민악파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연도 | | | | 1600~1750 | 1750~1820 | 1820~1900 | 19세기 후반 | 20세기 이후 | 본문 없이 연대표만 수록 |
| | 수록 권 | | | | | | | | | |
| | 분량(p) | | | | 0 | 0 | 0 | 0 | 0 | |
| | 분량(%) | | | | . | . | . | . | . | |

| 출판사 연대표 쪽수 | | 시대 구분 및 분량 | | | | | | 비고 |
|---------------|-------|-----------------------|---------------|----------------|---------------|---------------|-------------|----|
| 와이비엠 | 시대명 | 중세·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과 음악 | 낭만과 음악 | 국민악과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연도 | 476~1450년경 | 1600년경~1750년 | 1750년~1820년경 | 1820년경~1900년 | 1850년경~1900년경 | 1900년~ | |
| | 수록 권 | | ① | | | ② | | |
| | 분량(p) | 1/3 | 1/3 | 1/3 | 1/3 | 1/3 | 1/3 | |
| | 분량(%) | 16.7 | 16.7 | 16.7 | 16.7 | 16.7 | 16.7 | |
| 음악과 생활 | 시대명 | | 바로크 음악 | 고전 음악 | 낭만 음악 | 국민주의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연도 | | 1600년경~1750년경 | 18세기 중엽~19세기 초 | 19세기 초~19세기 말 | 19세기 중엽 | (정확한 제시 없음) | |
| | 수록 권 | | ① | | | ② | | |
| | 분량(p) | | 1/2 | 1/2 | 1/2 | 1/2 | 1/2 | |
| | 분량(%) | | 20 | 20 | 20 | 20 | 20 | |
| 지하사 | 시대명 | | 바로크 음악 | 고전과 음악 | 낭만과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 연도 | | 1600~1750 | 1750~1820 | 1820~1900 | 1900~ | | |
| | 수록 권 | | | | ① | | | |
| | 분량(p) | | 1/5 | 1/5 | 1/5 | 1/5 | | |
| | 분량(%) | | 25 | 25 | 25 | 25 | | |
| 천재 교과서 | 시대명 | 중세/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국민악과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연도 | 500~1450 1450~1600 | 1600~1750 | 1750~1825 | 1825~1900 | 19세기 후반 | 1900~ | |
| | 수록 권 | | ① | | | ② | | |
| | 분량(p) | 1/3 | 1/4 | 1/4 | 1/3 | 1/4 | 1/4 | |
| | 분량(%) | 20 | 15 | 15 | 20 | 15 | 15 | |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시대 구분 및 연도, 분량 비교

| 출판사 연대표 쪽수 | | 시대 구분 및 분량 | | | | | | 비고 | | |
|---------------|-------|---------------|-------------|--------------|---------------|---------------|---------|---------------|----------------|---------|
| (주) 금성 출판사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근대 및 현대 음악 | 낭만주의 내 국민악과 포함 | |
| | 연도 | (제시하지 않음) | | 1600년경~1750년 | 1750년경~1820년경 | 18세기 말~20세기 초 | 20세기 | | | |
| | 분량(p) | 1/2 | 1/3 | 1/2 | 1/2 | 2/3 | 1/2 | | | |
| | 분량(%) | 16.7 | 11.1 | 16.7 | 16.7 | 22.2 | 16.7 | | | |
|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 인상주의 음악 |
| 다락원 | 연도 | 기원전 3000년~5세기 | 5세기~15세기 중반 | 15세기 중반~16세기 | 17세기~18세기 중반 | 18세기~19세기 초 | 19세기 | 19세기 | 19세기 말 | 20세기~현재 |
| | 분량(p) | 1/3 | 1/3 | 1/3 | 1/4 | 1/4 | 1/4 | 1/4 | 1/4 | 1/4 |
| | 분량(%) | 13.3 | 13.3 | 13.3 | 10 | 10 | 10 | 10 | 10 | 10 |
| | 시대명 | |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 음악 | 낭만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인상주의와 20세기 음악 | | |
| | 연도 | | 350~1600년 | 1600~1750년 | 1750~1825년 | 1825~1900년 | 19세기 후반 | 1900년~현재 | | |
| (주) 박영사 | 분량(p) | | 1/3 | 1/4 | 1/2 | 1/4 | 1/4 | 1/2 | | |
| | 분량(%) | | 16 | 12 | 24 | 12 | 12 | 24 | | |
| | 시대명 | 고대 | 중세 | 르네상스 | 바로크 | 고전주의 | 낭만주의 | 근·현대 | | |
| | 연도 | BC,6C~AD,4C경 | 5~14C | 15~16C | 17C~18C 중엽 | 18C 중엽~19C 초 | 19C | 20C~ | 낭만주의 내 국민악과 포함 | |
| | 분량(p) | 1/2 | 1/3 | 1/2 | 1/2 | 2/3 | 1/3 | | | |
| 분량(%) | 15 | 10 | 15 | 15 | 20 | 10 | | | | |
| 시대명 | | 중세 시대 | 르네상스 시대 | 바로크 시대 | 고전 시대 | 낭만 시대 | 근현대 | | | |
| 연도 | | (제시하지 않음) | | | | | | | | |
| 비상 교육 | 분량(p) | 1/2 | 1/2 | 1/2 | 1/3 | 1/3 | 1/3 | | | |
| | 분량(%) | 20 | 20 | 20 | 13.3 | 13.3 | 13.3 | | | |

| 출판사 | 연대표 쪽수 | 시대 구분 및 분량 | | | | | | | | 비고 | |
|-----------------------|-----------|------------|----------------------|-------------------------|-----------------------------|-------------------------|--------------------------|----------------------|------------|------------|---------------------------|
| |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 근·현대 음악 |
| 위 아 침 나 라 | 2 | 시대명 | 고대 음악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 연도 | ~5세기 말 | 5세기 말 ~15세기 중엽 | 15세기 중엽 ~1600년 | 1600년 ~1750년 | 1750년 ~19세기 초 | 19세기 | 19세기 후반 | 20세기 | |
| | | 분량(p) | 1/6 | 1/3 | 1/4 | 1/3 | 1/3 | 1/3 | 1/3 | 2/3 | |
| | | 분량(%) | 6.1 | 12.1 | 9.1 | 12.1 | 12.1 | 12.1 | 12.1 | 24.2 | |
| 와 이 비 엘 | 0 | 시대명 | | 중세·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근·현대 음악 | | | |
| | | 연도 | | 500~1450년 1450~1600년 | 1600 ~1750년 | 1750 ~1820년 | 1820 ~1900년 | (제시하지 않음) | | | |
| | | 분량(p) | | 1/2 | 1/3 | 1/3 | 1/3 | 1 | | | |
| | | 분량(%) | | 20 | 13.3 | 13.3 | 13.3 | 40 | | | |
| 음 악 과 생 활 | 0 | 시대명 | | 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과 음악 | 낭만과 음악 | 국민악과 음악 | 근·현대 음악 | 연도를 본문 중에 달로써 제시 |
| | | 연도 | | 300 ~ 1400년대 | 1400년대 중반 ~ 1600년경 | 1600년경 ~1750년 | 18세기 중엽 ~19세기 초 | 1820년대 ~19세기 말 | 19세기 중엽 | 20세기 이후~ | |
| | | 분량(p) | | 2/3 | 1/2 | 2/3 | 2/3 | 2/3 | 1/2 | 1/2 | |
| | | 분량(%) | | 16 | 12 | 16 | 16 | 16 | 12 | | |
| 지 학 사 | 0 | 시대명 | 고대·중세 음악 | 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과 음악 | 낭만과 음악 | 근·현대 음악 | | | 낭만과 내 국민악과 포함 |
| | | 연도 | 고대 연도 중세 476~1450 | 없음 1450 ~1600 | 1600 ~1750 | 1750 ~1820 | 1820 ~1900 | 1900~ | | | |
| | | 분량(p) | 2/3 | 2/3 | 1/2 | 1/2 | 1/2 | 1/2 | | | |
| | | 분량(%) | 20 | 20 | 15 | 15 | 15 | 15 | | | |
| 천 재 교 과 서 | 0 | 시대명 | 고대~르네상스 음악 | 바로크 음악 | 고전주의 음악 | 낭만주의 음악 | 민족주의 음악 | 20세기 음악 | | | |
| | | 연도 | ~16세기 | 17세기 ~18세기 중엽 | 18세기 중엽 ~19세기 초 | 19세기 초 ~19세기 말 | 19세기 말 | 20세기 초 | | | |
| | | 분량(p) | 1/2 | 1/2 | 1/2 | 1/2 | 1/2 | 1/2 | | | |
| | | 분량(%) | 16.7 | 16.7 | 16.7 | 16.7 | 16.7 | 16.7 | | | |

수록된 시대별 분량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낭만주의 시대가 가장 많다.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이전 시대에 비해 남아있는 기록물들이 많고 특히 낭만주의 시대는 여러 악기의 발달과 주관적인 표현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이전 시대에 비해 음악적인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공연장에서도 주요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장르나 형식면에서 다양하게 실어야 하는 이유를 가진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앞에서 위의 <표 7>과 <표 8>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고 누락된 시대’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의 그늘로서 학습자들에게서 멀어진다. 여기서 ‘시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미씹 링크가 발생한다.

이 제외된 시대는 중학교 교과서 14종 중 9종과 고등학교 교과서 10종 중 4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락된 빈도는 고대가 12종, 중세가 6종, 르네상스가 5종, 20세기 음악이 1종 순으로 높다. 더욱이 대부분의 교과서가 20세기 음악 중 ‘전자 음악’이나 ‘리게티’를 다룬 후 동시대에 출현한 대중음악이나 공연 음악과 같은 현재의 음악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마무리된다. 이것은 ‘저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외된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음악의 탄생과 현재를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은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미씽 링크는 교과서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과정이 서술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그 과정을 서술한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24종 중 1종뿐이었다. 이것은 마치 소나타 형식에서 제1주제 다음 경과구도 없이 제2주제가 바로 이어질 때 곡의 진행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우 생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에 연결 고리(link)가 없다(missing)는 것은 학습내용 구성의 미완점으로 볼 수 있다.

3) 연대표의 부재

프랑스에서는 예술사 과목을 1993년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도입한 이후 예술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였고, 2008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예술사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작품을 비교하며 차이를 발견하고 나아가 거대한 변화를 주도해 온 중심적인 동선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중 프랑스 초등학교 예술사 교과서는 연대기적 주제별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연대기적 구성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작품을 맥락화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만든다. 과거의 사람들과 현대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일한 역사적 공간을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계승과 보존의 의무감이 만들어내는 연대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역사적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예술작품과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예술사 교육의 시간적 연속성은 자아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황미리내, 2018, p. 91).

연대표는 역사를 중시하는 프랑스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자료로서 프랑스인들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된 이미지다. 각각의 세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종의 연속 사슬에 의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일한 사슬의 공간을 이어가는 개인들 사이에는 시간의 측면에서 계승과 보존의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대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프랑스 예술사 교육에서는 시간적 연속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황미리내, 2018, pp. 52-53).

앞에서 제시된 2개표의 두 번째 열 ‘연대표 쪽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14종 중 11종에 연대표가 수록된 반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10종 중 3종¹⁾만이 연대표를 수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대상이 중학교 과정에서 세계사나 한국사를 배우고 진학했을 고등학생인 만큼 역사적 사건과 음악적 사건을 함께 다룬 연대표를 제시한다면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립되지 않은 시대의 연도 표기

서술에 관한 단순한 문제 한 가지는 몇몇 교과서에서 특정하고 있는 연도에 관한 것이다. 바로크, 고전, 낭만과 같은 음악 용어들은 익숙하지만 각 시대의 시점과 종점, 시대명에 대해선 학계마다 다른 관점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이 다른 것은 굳이 모든 교과서가 통일할 필요는 없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나 프랑스 혁명과 같이 발생한 연도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은 정확한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학계 내에서 정립되지 않은 시대의 흐름을 ‘르네상스 1450~1600년’과 같이 특정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하루아침에 구(舊)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은 시각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학습목표와 텍스트 구성의 연관성

이번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술된 학습목표와 텍스트의 서술 내용 및 방식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성공적인 수업은 학습목표가 얼마나 성취되는가에 있지만, 그에 앞서 진술된 학습목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학습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의 나열을 지양하고 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이 의도를 가지고 진술되어 있는지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엠킨슨(Atkinson, 1964; 권대훈, 1995, p. 5, 재인용)은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은 가장 큰 학습 동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수업에 임할 때 자신이 배우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또 어느 정도의 목표성취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학습 목표의 이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1) 1종은 별다른 언급 없이 악기 사진만을 제시하여 연대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제외하였다.

다는 의미를 가진다(이운호, 강현석, 2013, p. 105, 재인용).

<표 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학습목표 진술 비교 및 분석

| 출판사 | 학습목표 진술 사례 | 텍스트 서술 내용 및 방식 | |
|------|---|----------------|----------|
| | | 시대적 배경 | 음악적 특징 |
| 교학사 | 서양 음악의 흐름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시대적 + 음악적 ≡ | 음악적 ≡ |
| 금성 | 악곡을 감상하고 *** 시대의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다락원 | 서양 음악의 시대별 특징 이해하기 각 시대의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 | 음악적 ≡ |
| 동아출판 |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시대별 음악을 듣고 역사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미래엔 | ***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음악적 ≡ |
| 박영사 | [1권] 고대부터 고전까지의 변천을 이해한다. 각 시대의 음악적 특징과 음악가를 이해한다. 감상을 통하여 악곡을 이해한다. [2권]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민족주의 음악을 이해한다. 인상주의 이후 음악의 변천을 이해한다. | | 음악적 ☐ |
| 비상교육 | 서양 음악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양 음악의 시대별 음악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성안당 | 악곡의 장르와 음색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세광음악 | 음악을 듣고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다양한 연주 형태와 악기 편성의 음악을 들으며 악기 소리 및 성부 간의 조화를 느끼고 설명한다.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 | 음악적 ≡ |

| 출판사 | 학습목표 진술 사례 | 테스트 서술 내용 및 방식 | |
|--------|--|-------------------|----------|
| | | 시대적 배경 | 음악적 특징 |
| 아침나라 | [1권] 악곡의 형식(특징)을 알고 감상한다. [2권] ***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2권만) 역사적 ≡ | 음악적 ≡ |
| 와이비엠 | *** 시대의 음악을 듣고, <u>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u>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시대적 ≡ | 음악적 ≡ |
| 음악과 생활 | 악곡을 감상하고 *** 시대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대적 ≡ | 음악적 ≡ |
| 지학사 | 서양 <u>음악사의 배경과 흐름</u> 을 이해하며 각 시대의 음악을 감상한다. | | 음악적 ≡ |
| 천재 교과서 | 제재곡을 듣고 <u>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u>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역사 문화적 ≡ | 음악적 ≡ |

(***는 임의의 특정 시대를 뜻함.)

<표 1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학습목표 진술 비교 및 분석

| 출판사 | 학습목표 진술 사례 | 테스트 서술 내용 및 방식 | |
|--------|---|---------------------|--------------------------------|
| | | 시대적 배경 | 음악적 특징 |
| (주)금성 | 서양 음악의 각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감상한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다락원 | 서양 음악의 시대별 특징 이해하기 시대별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 역사적+음악적 ≡ | |
| 미래엔 | 다양한 종류의 서양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시대의 서양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주)박영사 | 다양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u>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u> 이해한다. | 시대 개관 설명 ≡ | 역사 적 배경 ≡ 음악적 ≡ |
| 비상교육 | 다양한 음악을 듣고 서양 음악사의 주요 시대와 장르를 구별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음악의 구조적 특징과 <u>문화적 배경을 관련지어</u> 설명할 수 있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출판사 | 학습목표 진술 사례 | 텍스트 서술 내용 및 방식 | |
|---------|--|----------------|----------|
| | | 시대적 배경 | 음악적 특징 |
| (주)아침나라 | ***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와이비엠 | 악곡을 <u>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u>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역사적 ≡ | 음악적 ≡ |
| 음악과 생활 | *** 음악의 <u>시대적 맥락과</u>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시대적 맥락 ≡ | 음악적 ≡ |
| 지학사 | 서양 음악의 <u>역사·문화적 배경을</u> 이해하고, 각 시대의 음악을 감상한다. | 역사+음악 ≡ | 음악적 ≡ |
| 천재 | 악곡을 듣고 <u>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u> *** 음악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역사+음악 ≡ | 역사적 ≡ |
| | | 음악적 ≡ | 음악적 ≡ |

(***는 임의의 특정 시대를 뜻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출판되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의 학습목표 중 역사적 배경에 관해 서술된 교과서는 8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 그 8종 중 2종은 학습목표에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텍스트에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아 진술된 학습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라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텍스트에서 역사적 배경에 관해 10종 모두 수록하고 있었으나 10종 중 4종의 학습목표에서는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 맥락에 관해 이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역시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간의 불일치를 보였다.

학습목표 진술에서 개념이나 이론 등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도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학습목표의 명확한 제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연스러운 수업의 흥미로 이끌 수 있다. 또한, 학습목표와 동시에 학습 내용의 상세화·구체화는 학습의 핵심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황규호, 1997, pp. 166-167).

Ⅲ. 음악사 서술 및 내용 구성의 방향 제안

1. 내러티브식 텍스트 서술과 미씽 링크(missing link)의 보완

성공적인 설명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하위 단계의 설명은 일련의 사실이나 알아야 할 간단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상위 단계의 설명은 사실을 넘어서 사실들 간의 관계, 이유, 동기, 원인을 함께 고려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한중, 1999). 음악사 텍스트는 시대와 시대 사이의 누락된 음악 양식의 발전·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시각과 관점이 없고 인과 관계가 부재한 설명식 텍스트가 반복되면 역사적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다.

바로크(Baroque)가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당시의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불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관련된 바로크 건축물 사진 자료를 보아도 음악과 연계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당시의 자기자기하던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웅장하고 대범한 양식이었던 바로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의미로 불린 이름이라 하지만, 요즘 음악의 음향이나 가사에 비하면, 또 후기 낭만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악곡에 비하면 어느 부분에서 과감한 스타일을 느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다. 이는 역사의 시대가 앞선 시대로부터 상대적인 이미지와 개념을 부여받는다는 당대의 관점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역사·문화적 배경을 알고 음악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를 진술하고 텍스트를 서술하여도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원인) 음악의 변화(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생소한 음악 용어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의 표에서 곳곳에 누락된 시대들은 시간의 흐름이 끊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에게 특징적인 각 시대가 하나의 합리적인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치 서로 독립적인 각 시대가 우연히 탄생하는 것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음악이 시작되었던 고대는 특히 오페라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 극이 있었고, 음높이와 음길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표기한 비석이 새겨질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이다. 중세는 보표, 계명창, 음표, 박자표와 같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음악을 기보하는 기본적인 도구와 방법들이 처음 고안되어진 시기이며, 우리 전통 음악을 비롯한 모든 비 서구 음악과 서구의 음악을 갈라놓게 된

가장 큰 요인인 다성 음악이 출현하여 그 첫 발전 단계를 거쳤던 때이다. 뒤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에 이룬 이러한 음악적 발전을 바탕으로 ‘가사 내용의 음악적 표현’이라는 다분히 인문주의적인 측면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눈부신 음악적 성과를 이룩하였다(이남재, 1996, p. 178). 이처럼 중세의 항목들은 감상곡과의 연계뿐 아니라 주로 기초적인 음악이론을 가르치는 것과 병행하여 그 기원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남재, 1996, p. 203). 음악적 요소의 근원을 가진 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음악의 기원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음악사는 나와 동떨어진 타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나 또한 과거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으로서,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것 없는 맥락적인 내러티브식 서술 방식으로 교과서의 음악사가 쓰인다면 훨씬 효율적인 음악사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악은 사라진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대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뿌리를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내러티브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대의 예술교육은 지식 습득과 기능 숙달 위주의 전통적인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을 매개로 자신과 타인, 세계를 보는 관점을 기르고 개인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전통적 예술교육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현대의 예술교육은 ‘자아, 타인, 공동체’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술을 배운다’에서 ‘예술로 배운다’는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과별 교육과정에 인문적 소양(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문적 소양을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황미리내, 2018, p. 2).

2. 삽화의 교육적 의미 및 활용

교과서는 한 시대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를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며 국가의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삽화의 경우 내용을 요약하거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이다. 삽화는 다른 교육 자료와는 달리 교과서 내에 포함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교육매

체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어떤 자료보다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이은진, 2015, p. 1).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 함수곤(2002)은 교과서는 학습의 동기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이어야 하며 학습 과제는 학생의 호기심과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고와 추리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대한 관점이 과거의 교수자 위주에서 학습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의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적인 부분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학습자 스스로의 개념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이운호, 강현석, 2013, p. 88, 재인용).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 출판된 교과서들은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출판된 교과서보다 삽화와 만화의 게재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만화라는 표현방식에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교육적인 만화의 형식이 새로운 텍스트의 진술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만화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심심할 때 재미로 읽는 일탈의 대상이 아니라 정규 교과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조철기, 2011, p. 61). 이러한 그림 자료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활자가 주는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만화로 나타낸 방식에도 역사적·문화적 배경 없이 단순히 음악적 특징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고, 역사적 흐름이나 배경을 음악적 내용과 함께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의도를 담아 풀어낸 곳은 1종뿐이었다. 한 교과서의 삽화는 용어의 핵심을 다르게 해설할 소지가 있었고, 또 다른 교과서의 삽화는 당시의 배경이나 인물 대신 현대적인 장면을 그려 시대상을 전달하지 못했다.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활자가 주는 학습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삽입되는 그림, 사진, 악보 등은 거듭 검토하여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다. 활용되는 자료가 기존의 그림이나 사진이 아닌 삽화나 만화일 경우 미술사, 의복사 등의 정확한 고증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text) 속에서 컨텍스트(context)가 발생되고 총체적인 시대상이 느껴질 때 삽화(만화)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내용과 삽화의 내용이 일치할수록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반면 삽화가 학습자로 하여금 삽화와 관계없는 내용을 제시하여 주의를 유도하거나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심상을 그리게 한다면 집중을 분산시키고 언어적 작동기역의 부

담으로 인해 학습을 방해하는 등 교육적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또 삽화의 제시 유형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제시는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기도 한다(이은경, 2009, p. 178, 재요약).

박인옥(2010)은 삽화 자료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학습 자료로 활용될 때 삽화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습의 기본 요소(교과내용)를 해설,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지식을 알게 되는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될 때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직관적 교수를 가능하게 하는 삽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다음 5가지를 설명하였다.

첫째, 삽화 자료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관심,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삽화 자료는 직접 경험을 대신할 수 있고 삽화의 내용으로부터 사물의 개념을 바꾸며, 삽화에 스며있는 감정, 정서를 그대로 옮겨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줄 수 있다. 셋째, 삽화 자료는 문자로서 전달할 수 없는 특징을 값지게 하고, 문자와 그림을 결부시켜 학습 내용을 쉽고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다. 넷째, 삽화 자료는 학습자의 망각률을 감소시켜 과지와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삽화 자료는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을 바르게 이해시켜 학습자들이 삽화를 분석·비판·해석함으로써 자료의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브로디(Brody, 1982)는 삽화의 기능에 관심을 갖고 삽화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제시된 삽화가 지녀야 할 속성 중 ‘교과내용과의 관련성’으로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내용과 삽화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의 연령, 과거 경험 등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시대적 배경과 삽화의 표현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성희, 1987, pp. 20-21, 재요약).

3. 젊어진 가창영역과 젊어진 음악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영화음악, 대중음악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가창영역이나 기악영역, 생활화 영역과 달리 음악사는 20세기 중반의 전자 음악이나 미니멀 음악의 소개로 끝으로 마무리하는 클래식의 계보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함희주(2006)도 고전적 악곡들로 구성된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들어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룬 교과서가 많아졌지만 음악사와 구분지어 따로 수록함으로써 시간적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학생들이 열광하는 동

시대 음악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관한 음악사 영역 내의 맥락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은 생활에서 접하는 음악이 학교에서 접하는 음악과 다르다고 여기며 고전 음악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은 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스가노 에리코(2015)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술교육은 예술이 갖는 문화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과 세계의 다양한 관계 방식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음악사 수업이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로 그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감성과 시대감각을 일깨우는 수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구성 또한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음악사 수업의 방식을,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과 악곡을 선정하여 학습하고 감상할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와 관련하여 음악이 어떤 영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음악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한 다양한 악곡들을 학습하고 감상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음악사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목표와 가까워지리라 본다. 이는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사 내용과 감상곡 레퍼토리가 일치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4. 독일 중심주의 관점을 탈피한 다원적 서술

음악 작품은 개별로 존재할 수 없고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건,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지역적 특성과 철학의 혼재 및 부재, 권력의 이동, 종교의 통합 혹은 분리, 경제의 발달과 향유계층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전하고 진보해온 음악 양식들은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한중(2008)은 다원적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지배적인 관점이나 해석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음악사 교육에서 중심이 된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 중심의 역사인식이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음악사를 독일 중심의 역사관으로 기술된 책으로 공부해왔고 은연중에 독일 음악이 위대하며 절대음악이 표제음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남재(2002)는 19세기 서양 음악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국민악파(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독일 중심적인 음악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이후 전 세계의 음악 발전을 주도하게 된 독일 음악은 소나타와 교향곡으로 대표되는 기악곡 위주의 소위 절대 음악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절대 음악은 17~18세

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오페라의 발달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독일은 오페라의 발전에 대해 의식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작업을 해왔다. 달하우스(C. Dalhaus) 또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여 베토벤의 기악곡들과 루시니의 오페라들이 19세기 초 유럽 음악의 양대 스타일의 근원을 이룬다고 인정하고 있다(이남재, 2002, pp. 227-229).

독일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금의 독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공통적인 요소라고는 문화적 요소뿐이었으므로 문화를 기초로 민족과 민족주의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강철구, 2001, p. 133).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음악 강대국’으로서 끼친 독일의 영향은 지대하며 독일 사람들의 펼쳐온 활발한 음악 활동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의 뛰어난 음악 작품 창작을 통해 인류의 음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이남재, 2011, p. 92). 그러나 학생들의 음악을 바라보는 첫 안목을 위한 역사의 서술을 위해 참고할 문헌을 살펴볼 때에는 보다 객관성을 위해 흔히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간의 보편적인 음악관과 함께 그 외 제3국에서 음악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문헌을 두루 참고하여 지리나 장르의 다양함을 담을 수 있는 균형감 있고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 중심주의(민족주의) 음악관을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창영역에서 언급되는 악곡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탄생되어 불리었던 곡인지에 대해 음악사와의 지리적·장르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면 가창영역의 악곡과 음악사를 연계하는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역으로도 감상곡으로 선정되는 악곡이 음악사의 텍스트와 일치하도록 서술한다면 한 권의 교과서로 음악을 종합적·조직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바흐와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정전(canon) 목록도 좋지만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하고 즐기는 음악은 동시대의 음악이므로 그 서술이 현재에 와닿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욕구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그 외 발전적 음악 교과서를 위한 제안

이번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참고로 살펴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학교에서 다루어진 감상곡의 선정과 역사적 배경의 내용, 악곡의 형식이나 의미 분석 등 중복되는 내용이 빈번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부터 비발디의 ‘사계’나 모차르트의 세

레나테 13번 등 중복되는 감상곡과 학습내용이 많아 발달과정에 따른 학습내용의 위계성(hierarchy)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필자가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모두 제시되고 있었다. 즉, 학습내용의 초·중·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의 재량이나 수업 시수 부족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교과서의 모든 악곡과 내용을 다루지 않고 중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계성 없이 학교급별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록하는 것은 학계 내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선 여러 연구에서 음악 교과서의 내용 체계가 제재곡을 중심으로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거의 매 학년마다 학습하도록 구성된 점, 단조롭게 반복되는 학습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욕구를 자극하지 못하는 점,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음악 교수·학습 방법이 단순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음악 이론을 배울 때 음악을 듣거나 만들지 않고 교사의 강의와 문제 풀이로 배우고 있었으며, 고등학생들은 음악 이론 시험을 볼 때 교과서 내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었다(최윤경, 2008, p. 72).

우리 교육자들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의 위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익히 들어왔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도 전문적인 음악적 내용을 대상 학년을 고려하여 각 학교급별로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우리가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 텍스트와 그에 수록된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간의 서술 방식 및 시대 구분 및 연도, 시대별 분량을 비교·분석하고 내용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텍스트 서술 방식은 내용과 유형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면에서 서술 방

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이 서로 연계된 맥락적 서술, 즉 내러티브식 텍스트와 역사·문화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거나 연계되지 않은 설명식 텍스트로 구분하였고, 유형면에서는 텍스트의 형태에 따라 줄글식, 개조식, 개조식+삽화식(개별), 개조식+삽화식(복수), 만화식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교육과정 때 출판된 교과서들에 비해 삽화나 만화의 게재율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과서가 설명식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음악 역사의 처음인 고대부터 20세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시대를 연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미씽 링크(missing link)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저자에 의해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하고 제외된 시대’이며, 하나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의 필요한 맥락적 서술이 누락된 것이다.

셋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 중 3종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중 7종이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연대표가 부재하였다.

넷째, 연도의 표기에 있어 ‘르네상스 1450~1600년’, ‘고전주의 시대 1750~1820년’과 같은 특정한 연도는 학계 내에서 정립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진술된 학습목표와 텍스트 구성의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목표 또한 개념의 나열이 아니라 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이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성공적인 수업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음악 작품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건,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지역적 특성과 철학의 혼재 및 부재, 권력의 이동, 종교의 통합 혹은 분리, 경제의 발달과 향유계층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전하고 진보하는 음악 양식들이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서술되어야 하나의 현상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사고는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교재인 교과서에서 음악사를 맥락적으로 서술하였을 때 비로소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연대표에서 흔히 보이는 어려운 사조들과 음악 용어들은 시대별로 달라지고 새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단편적인 서술은 이분법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와 동떨어진 옛날이야기로 보이기 쉽다. 직선의 연대표에서 간단히 개조식으로 서술된 특징들은 하나의 음악이 새롭게 발생한 것에 대한 맥락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과 ‘생활화’ 영역은 교과

연계·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감상’ 영역의 음악사는 여전히 설명식으로 서술하며 문명사와 관계없이 ‘음악’이라는 분야만 독자적으로 발달해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 결과에 따른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교육적인 음악사 서술을 위해 내러티브(narrative)식 텍스트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두 가지 종류의 미션 링크가 보완되어야 할 것과, 둘째, 연대표를 삽입하여 역사의 총체적인 시각과 시간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음악사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일치하도록 진술할 것, 넷째,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삽화를 적확히 제시할 것, 다섯째, 최근 경향을 띤 음악이 많이 수록되면서 젊어진 가창영역만큼 음악사 내용 또한 20세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시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와의 괴리를 줄일 것, 마지막으로 기존의 독일 중심주의 음악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음악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미 완료된 역사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흐르고 있는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앞선 세대의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가올 미래의 음악을 추측해 보도록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과 함께 교과서 또한 학교급별 위계성을 회복하고 음악교육자들이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학생들의 시대 감각을 일깨우는 내러티브식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엄동식, 조아영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와이비엠.
- 강철구 (2001). 독일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이화사학연구**, 28, 133-150.
- 강현석 (2007).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서 진술 방식의 탐구. **초등교육연구**, 20(3), 177-207.
- 고영신, 이유정, 이성초, 김효진, 김보라, 최슬기, 길효섭, 이은솔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2]: 저자.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저자.
- 권대훈 (1995).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이 학습방략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연구**, 15(1), 33-64.
- 김광옥, 박정자, 김희경, 박복희, 김주경, 이누리 (2018). **중학교 음악**. 경기: (주)아침나라.
- 김광옥, 박준호, 김희경, 박수진, 이누리, 전미진 (2018). **고등학교 음악**. 경기: (주)아침나라.
- 김용희, 현경실, 채은영, 김지현, 이세경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출판사.
- 김한중 (1999). 국사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설명방식. **사회과학교육연구**, 3, 47-77.
- _____ (1999). 역사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형식과 원리. **사회과학교육연구**, (3), 81-107.
- _____ (2006). 역사의식은 역사와 교육의 접점. **내일을 여는 역사**, (24), 283-293.
- _____ (2008).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8), 229-261.
- _____ (2016).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역사인식과 학습방법. **역사와 담론**, 80, 401-437.
- 민경훈, 오지향, 정재은, 송주현, 이분희, 양정아, 김선희, 이윤경, 김주현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동아출판(주).
- 박인옥 (201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삽화의 기능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2), 49-62.
-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소형, 변은지, 김혜미 (2018). **중학교 음악**. 서

울: (주)와이비엠.

복성규 (2012).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41, 57-85.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윤, 황은주, 송미애, 김수철, 전명찬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윤,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음악과생활.

양호환 (1998). 역사서술의 주제와 관점: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1-26.

이남재 (1996). 중학교의 음악 감상 수업을 위한 바로크 시대 이전의 관련 자료.

음악교육연구, 15(1), 177-206.

_____ (2002). 21세기 초에 다시 생각해 보는 서양음악. **에머지**, (5), 220-233.

_____ (2011). 민족 음악으로서의 독일 음악 역사적 고찰. **한국음악학학회**, 20, 69-96.

이윤호, 강현석 (201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과서 진술 방안 탐색: 초등 수학,

과학 교과서의 스토리텔링 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9(1),

83-118.

이주섭 (2001). 상황 맥락을 반영한 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스가노 에리코. (2015). **하버드는 음악으로 인재를 키운다**. 박승희 역. 서울: 양문.

이은경 (2009). 삽화 제시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삽화 이해에 관한 연구. **한국지**

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77-188.

이은진 (2015). 중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자료 분석: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 (2018). **중학교 음악**. 서

울: (주)미래엔.

장기범, 임원수,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이시욱, 김경태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미래엔.

전세은 (2010). 맥락중심 시 읽기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박경준, 곽은순, 엄숙용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지

학사.

정육희, 이정원, 유대한, 임미소, 임새롬 (2018). **중학교 음악**. 경기: (주)성안당.

조대현, 김영미, 최은아, 윤아영,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 (2018). **고등학교 음악**.

- 경기: (주)다락원.
- 조대현, 김영미, 최은아, 윤아영,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 (2018). **중학교 음악**. 경기: (주)다락원.
- 조철기 (2011). 지리 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 학회지**, 19(1), 49-65.
- 주광식, 신혜영, 이성은, 김가영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박영사.
-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박영사.
- 주대창, 성은정, 이복희, 이동희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비상교육.
- 주대창, 홍미희, 홍진표, 이동희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비상교육.
- 최성희 (1987).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의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윤경 (2008). 내러티브에 기반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박은영, 문베티, 이정은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천재교과서.
-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신윤균, 강선영, 안인경, 양보라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천재교과서.
- 함수곤 (2002).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39), 8-13.
- 함희주 (2006).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음악교육연구**, 31(0), 223-244.
- 허화병, 오병태, 안주연, 오누리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현경실, 김용희,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2018). **중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출판사.
- 황규호 (1997).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진술 방식 개선 과제. **초등교육연구**, 11(0), 161-184.
- 황미리내 (2018).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프랑스 초등학교 예술사 과목 탐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지학사.
- Bruner, J. S.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E. H. (2015).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역. 서울: 까치.
- Wylie, L. (2007). **프렌치 프랑스**. 손주경 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ABSTRACT

**A Study on the Description Method and
Composition of Western Music History in
Music Textbooks**

Im, Saerom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hrough analyzing the description method and composition of western music history in music textboo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description method between the historical/cultural background and musical features, and also about the periodization, years and the quantity of each era in 14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and 10 high school music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15. After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composition of western music history.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most of music textbooks are depending on the description type of texts, and also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missing links' which have failed to connect each er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 correlation of learning goals with learning contents as well as the absence of chronological table of musical history and year mark. Thus,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music textbooks use more narrative type of texts, efficient use of illustrations in order to make effective education in music history and expects there to be more attention for the music history description to the multidisciplinary manner including contemporary music as with recent trends of textbooks in the vocal section.

Key words: textbooks, music history, description, narrative

투고일: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1일), 게재확정일: 4월 27일